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위한 자산관리 대책

이진호 | 한국 IBM 소프트웨어사업본부 전문위원 | 실장, 정보통신기술사, 공학박사

Pro and Con/ SW Compliance

“SW 지적재산은 적법하게 보호되어야” vs. “SW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행”

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위한 자산관리 대책 마련은 시급한 사안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에서는 매년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자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들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은 마땅히 적법하게 보호되어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나아가서는 IT 산업의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매년 기업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의 가치에 상당하는 소프트웨어가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는 이러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단속 활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의 많은 고객들이 기업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할 뿐, 적절히 자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벤더 회사들의 라이선스 정책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또한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본의 아니게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윤리적 명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부주의로 인하여 기업의 윤리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사베인-옥슬리 법안 등에서는 기업들이 자사의 재무적 상태를 엄격히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재무 보고에는 자산과 경비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IT 하부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보다 정확히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경비 및 개발 주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량 구매 할인 혜택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및 유지보수 경비의 사용을 경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사와 고객 모두에게 있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의 최적화이다. 기업이 판매하고 구매하는 매출과 경비가 투명해 지기 때문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운영경비의 경감이다. 불필요한 부서별, 프로젝트별 소프트웨어 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운영경비를 경감할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에 대한 평가 투명성 제고이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투명해지고 보다 분명하게 되어 사용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의 구축이 가능하다. 넷째, 기업의 윤리성 제고이다. 소프트웨어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향후의 재무 관련 활동과 보고에 확신을 기할 수 있다. 다섯째, 관계 개선이다. 판매 회사와 구매회사간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동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윈-윈 구조의 비즈니스 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소프트웨어 벤더사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자산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소프트웨어 제작사와의 계약 내용에 대한 숙지도 부족한 실정이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커지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회계적으로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제상의 이점도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적게 느끼고 있다. 또한 대학 교육에서부터 소프트웨어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의 자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구매하기에는 매우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며, 공개 소프트웨어 및 프리웨어 등의 범람으로 소프트웨어는 무료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보호기술들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손쉽게 패스워드 등을 도용하여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어 정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환경을 제공받고 있기도 하다.

일부 선진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구매부에서 소프

트웨어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으로는 재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소프트웨어에 발생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관련 구축 서비스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소프트웨어는 그 가치의 인식이 천차만별이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CD 몇장에 수천만원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기가 쉽고 따라서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흔적인멸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사에서의 감시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도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과 초고속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킹의 발달로 인하여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는 무료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고객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전체 국민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관련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갑작스러운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 등의 활동은 자칫 고객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결과적으로, 고객과 소프트웨어 벤더사간의 윈-윈 구조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다른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예민한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IT 인력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에 대한 의식개혁의 선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발적 의식 없이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는 CIO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직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시급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